

양수장 용도폐지...“시설 매각해 하천수 취수 허용을”

전남광주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용수 공급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0여년간 제지공장의 산업용수 취수시설로 활용돼 온 양수장의 용도폐지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노후화와 안전성, 농업용수 공급 기능 등을 이유로 시설 정비에 나선 반면 업체 측은 직접 확보한 하천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매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담양군 대전면의 한 제지공장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공장은 인근 양산양수장을 통해 담양호 용수를 공급받아 생산시설을 가동해왔다.

양산양수장은 1994년 당시 공장 측이 비용을 들여 보강·개수한 뒤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된 시설로 농업용수를 공급하

담양 제지공장, 새 양수장 기능 변경에 용수 공급 비상 농어촌공사 “노후화·농업용수 기능 종합 검토” 입장차

는 동시에 공장의 공업용수 취수에도 활용됐다.

용수 공급을 둘러싼 갈등은 2021년 지역 환경단체가 주민 692명의 서명을 받아 농업용수 공급 중단과 사용허가 종료를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일부 주민들은 약취와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공장 이전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과거 환경 관련 행정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현재 수질 등을 법정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업체에 대체수원 확보를

요구했고, 업체는 영산강 하천수 취수를 추진해 지난해 3월 하루 4000㎥의 취수허가를 받았다. 현재 담양호 용수와 영산강 하천수를 합쳐 최대 하루 8000㎥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수원을 확보한 뒤에도 문제가 남았다.

농어촌공사가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양수장을 대신할 새 시설을 건설하면서다.

새 양수장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계돼 기존 공장의 공업용수 취수 기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폐지가 결정된 양산양수장.

업체 측은 기존 양수장이 용도폐지되면 직접 확보한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올릴 취수시설까지 사라지며 그 결과 공장이 멈추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의 농어촌공사 용수 공급계약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영산강 하천수 취수 허가는 2027년 말까지다. 또 기존 양수장은 연내 용도폐지될 계획이다.

시설 안전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농어촌공사가 2024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양산양수장이 종합 D등급을 받았지만, 업체 측이 최근 별도로 실시한 진단에서는 보수·보강 이후 B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기존처럼 공업용수를 계속 공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양수장을 매각해 직접 확보한 하천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양수장이 용도폐지될 경우 철거를 우선하기보다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 과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양수장 본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관련 구

정과 현장 여건 등을 살펴 결정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전남광주의 산업용수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와 소부장 기업이 늘어나면 산업용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지와 전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부도 중요한 투자 조건이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전력과 부지뿐 아니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신규 기업 유치와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 기반을 따로 보기보다 지역 전체의 산업용수 수요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최근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나 ON, 청년 ON’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출범식을 개최하며 청년 소상공인이 직접 지역 상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청년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이끈다

소진공·하나금융 ‘청년 ON’ 출범...상권별 협업 구축

청년 소상공인이 직접 지역 상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나 ON, 청년 ON’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소진공과 하나금융그룹이 체결한 ‘청년 소상공인 상공 지원 ESG 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청

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결해 접목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출범식에는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프로젝트에 선발된 청년 소상공인 15개팀,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출범 세리머니를 비롯해 강연과 토크콘서트, 사례 공유, 네트워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 지도를 활용한 LED 점등과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도전과 지역 상권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강연 및 토크콘서트에서는 인태연 이사장이 청년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조직화,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여자들은 각 상권이 처한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고 공동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단순한 개별 점포 지원을 넘어 청년 소상공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과 협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진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의 소비 주체를 넘어 상권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청년 소상공인은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청년 소상공인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소상공인이 주도적으로 상권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광주 고용 외국인 근로자 2만2352명

전국 체류 인원 28만7424명...제조업 80% 집중

서비스업 허가 발급률 59%...현장 맞춤 공급 필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전남광주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만2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체류 인원 28만7424명의 7.8%에 해당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국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15만9463명에서 2022년 20만3121명, 2023년 24만7191명, 2024년 27만1925명, 지난해 28만28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에는 28만742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업종별 인력 수급에는 불균형이 나타났다. 전국 체류 인원의 80.0%가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농축

산업 11.8%, 어업 5.4%, 건설업

2.3%, 서비스업 0.5% 순이었다. 고용허가 신청 대비 발급률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3만8998명, 발급 인원은 3만1986명으로 발급률은 82.0%였다. 반면 서비스업은 564명 신청에 333명만 발급돼 전체 평균보다 23.0%p 낮은 59.0%에 그쳤다.

건설업은 불황으로 신청 수요 자체가 위축됐다.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683명으로 올해 예정 규모인 2000명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단순한 인력 배정을 넘어 업종별 경기와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한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경기 둔화로 전체 고용 신청 규모는 감소했지만, 특정 업종 풀림과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확실적인 인력 통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미스매치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KH MEDICHECK

건강검진

매일 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